#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법림상인(法林上人)에게 써서 보이다

書示法林上人

이 도는 여태껏 의심 풀지 못했으니 此道從來未決疑
어지럽다 어떤 것이 참다운 앎일런고. 紛紛何者是眞如
신령한 근원이야 망기(忘機)함에 있나니 靈源政在忘機地
묘법은 원래부터 말 없는 중에 있네. 妙法元存不語時
있네 없네 하는 얘기 모두다 환망(幻妄)이니 說有說無都幻妄
심(心)과 성(性)을 본단 말씀 도리어 지루하다. 觀心觀性轉支離
평생에 늘 남들에게 요설을 경계타가 平生每戒人饒舌
굳이 우리 스님 위해 시 한 수를 짓는다오. 强爲吾師一賦詩

## 월사(月沙) 댁 술자리에서 짓다

月沙宅酒席有作

찬 날씨에 은촉불은 황혼을 비추는데 寒天燈燭照黃昏
성문에선 종이 울려 문을 닫으려 하네. 鐘動嚴城欲閉門
남다른 대접 여태껏 곽외(郭隗)에 부끄러웠는데 異禮向來慙始隗
맑은 술잔 순우곤(淳于髡)만 남겨두니 얼마나 다행인가. 淸尊何幸獨留髡
감격해도 높은 의리 보답할 길 바이없어 未將感激酬高義
공연히 주선하며 가르침을 받든다네. 空自周旋奉緖言
내일 외론 배에 강과 바다 넓으리니 明日孤舟江海闊
흰머리로 근심 겨울 어이 다시 논하리오. 白頭愁絶更堪論

*곽외(郭隗)에 부끄러웠는데 : 전국시대 연나라 왕이 어진 이를 초치하는 법을 묻자 곽외(郭隗)가 죽은 천리마의 뼈를 5백금에 산 고사를 이야기 하며, 자기부터 잘 대접하면 자기보다 어진 사람이 천 리를 멀다 않고 오리라고 했던 고사. 분수에 넘치는 대접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쓴 것임.

*순우곤(淳于髡)만 남겨두니 : '사기' '골계열전' 에 나오는 순우곤의 이야기. 제나라 위왕(威王)이 술에 대해 대화한 후, 위왕이 감동하여 늘 순우곤을 곁에 두고 술을 마셨다는 고사. 자신을 순우곤에 견준 것이다.

# 권용섭재미화가 독도 그림전

△권용섭재미화가 독도그림전에서 기념촬영 권용섭화백(좌), 남문기의장(우).

지난 10월 25~26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의원회관 2층에서 권용섭재미화가 독도그림전 및 고종황제 독도칙령제정112주년 기념행사가 김을동 새누리당국회의원(송파구), 남문기 在美해외한민족 대표자협의회 의장 및 오경렬 비서관,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장, 윤종욱 독도장터대표, 박영춘 독도해병지킴이 본부장, 권귀순 권용섭화백동생, 독도사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작품(30점), 사진(20여점) 등이 출품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곡 용섭화백은 그간 독도를 벗삼아 걸어오고 독도 바람을 일으키고 잠재우는 화가로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한국을 알리고 독도를 알려온 영남(의성)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로서 그의 진 일면의 작품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은 한국의 비경인 '독도'의 재발견과 깊이를 더했고 혼신의 열정으로 그린 그의 이번 전시 작품은 옛것을 그대로 담아 정감 있는 것, 틀을 깨어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미소도 만들어 탄성을 자아내는 전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독도화가 권용섭씨의 가족(여영난, 권청실, 진실)은 모두 그림을 그리며 지구촌 20여 개국을 돌며 국내외 독도 행사에 초청만 해도 100여회에 달하며, 권용섭 여영난 부부전 및 2인전 10회, 초대전 200여회 등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2002년 한일공동어업협정 재협상 주장, 고종칙령 41호 '독도는 조선땅' 선포 109주년기념 세종문화회관 전시에 이어 111~112주년 행사에 참가하면서, 제4회 다케시마의 날을 무색케 했다.

KBS 박중훈쇼, MBC 문화Yo, 특집 다큐멘터리 등 30여회를 출연하며 독도 문화대사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東谷화백의 작품 세계는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모필과 먹으로 한국선조들의 풍류정신을 이은 전통기법과 수묵속사, 과감한 발묵의 터치에도, 실경의 리얼리티로 표현되며 현장의 이야기와 평온함을 보이며 추구해 주고 있다.

이날 남문기 在美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은 오후 5시경 독도칙령제정 1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를 했으며, 전세계 주요기관에 독도를 홍보하는 기금 유공으로 공로패를 받았다.

〈권오복 편집위원〉

## 月沼 尹泰姬씨

# 書藝 招待作家 認定

△月沼 尹泰姬서예가

서예가 月沼 尹泰姬씨(74, 파평윤씨, 권태강검교공파종회장 부인)가 지난 10월13일 (사)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회장 李日錫)로 부터 서예 초대작가 인정을 받았다.

尹作家는 (사)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서예공모대전과 추사서예대상 전국서예대전에서 작가인정자격규정에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였기에 초대작가 자격을 인정받아 작가인정패를 받았다.

윤태희 초대작가는 천부적인 서체 소질로 태어나 그동안 3체장은 한석봉씨와 추사체는 오선영씨로부터 사사받아 올해 1월10일 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 주최, 삼체장(三體章, 전서, 예서, 해서)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으며, 또한 지난 8월 226주년 추사서예대전에서 추사체특선과 三體章 牌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윤태희 초대작가는 서예부분공모전 출품작의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받아 앞으로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달 의 시

## 유명산 雪景

설경

청하 권 대 욱

하얗던 하늘에 덮어둔 기억의 타래가
산중문답 되어 가부좌 틀고
붉은 머리 딱따구리가 쪼아대는 느긋한 설경,
등짐에 얹힌 대설주의보로 파르르 놀란다

내 호기심을 알기나 할는지
삶과 죽음의 경계보다 앞선 노송 아래
철없는 박새 먹이재촉이
쌓여가는 눈보라만치 빠르다

저만치 백운대 높은 숨결로
위기 느낀 겨울은 봄을 예비하지 못한
유명농계에 미련 두고 떠나려니
야윈 전나무 그림자 비틀거리는 길이
뱀처럼 따라온다
여태 툭툭 떨어지는 한숨, 모두 예 두고
하얗게 다시 빛날 내 터전으로 돌아가련다
뒷사람 길 되기 전 조신스런 걸음으로.

■ 신간안내

# '권오길 괴짜생물이야기' 발간

## 권오길 강원大 명예교수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알리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한 권오길씨(72, 산청, 복야공파, 35世) 강원大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10월25일 (주)을유문화사刊으로 '권오길괴짜생물이야기' (292쪽)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사람의 얼굴에서 살아가는 모낭진드기에서부터 사냥 실력이 형편없는 맹수의 제왕 호랑이까지 '달팽이박사'가 전하는 다채롭고 신비한 우리 생물이야기를 1장에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생명들, 2장에는 이 땅의 기이하고 매력적인 동료들, 3장은 우리 주위의 재미난 이웃들, 4장은 산과 들에 퍼져 있는 친구들, 5장은 묵묵히 한구석에 자리한 생존의 달인들, 6장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묶여져 있으며 인간부터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땅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온갖 생물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와 깊은 성찰이 담겨져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땐 모두 평발이지만 나중에 발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다는 사실과 손가락을 꺾으면 소리가 나는 이유, 과학 수사에 사용되는 반대의 놀라운 능력과 '갈등'의 어원이 된 칡과 등나무의 자리싸움, 우리와 다름없이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려 '화학전'도 불사하는 식물들의 모습 등,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다채로운 생물들의 이야기가 주옥같이 알알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과거 굶주리고 어려웠지만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시절의 회상이 각각의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전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즐거움이 있어,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권오길저자는 강원大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생물계분야 학문연구에 정진하고 있으며, 그간 사회·학술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한국간행물윤리상·저작상·강원도문학상 등을 수상, '달팽이 박사'로 닉네임이 붙여져 있으며, 서울大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꿈꾸는 달팽이」 外 8권 다수가 있다.

문의처 : 016-330-7984(권오길)

〈권오복 편집위원〉

■ 역사기행

# 창경궁에 숨은 이야기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창경궁은 조선조 제9대 성종대왕이 1483년에 세운 왕궁이다. 창덕궁 옆에 세워져서 이 2궁궐은 합하여 통궐이라하였다.

이는 성종대왕이 3명의 대비를 위하여 궁궐을 창경궁으로 확장한데 연유한다. 창경궁은 임란때에 거의 소실되었다. 그때에 왜병이 불태웠는지 또는 난민이 불질렀는지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왜냐하면 임금이 몽진함에따라 먼저 불순한 뜻을 가지고 난민이 불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러나 창경궁은 1616년(광해8년)에 재건되었으며 현재의 건물들은 1834년(순조34년)에 재건한 것이나 일제강점기에 형편없이 훼손한 상태였으나 지금까지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제의 악날한 식민정책에 의하여 1907년부터 창경궁의 궐내 각사를 대부분 철거하고 동물원과 식뭘원을 설치하여 유원지로 만들고 1911년네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명칭마저 격하시켰다.

그리고 종묘와 한 울타리 안에 있었던 지역을 맥을 끊기 위하여 가로질러 자동차 길을 내었다고 한다. 이 길이 요사히 율곡로인데 지금은 확장공사를 하느라고 길을 넓히고 있다.

창경궁은 궁궐의 보편적인 건축원칙을 벗어나서 창경궁의 중심부분은 특이하게 동향으로 배치되였다. 지세에 의존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어진 모습에서 궁궐의 전형적인 양태를 돋보이게 하고있다.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이다. 2층 누각형 목조건물로 좌우에 한성의 십자각을 세워 대문을 세웠으며 이문을 들어서면 금천이 흐르는 옥천교가 나오는데 다리난간에 도깨비상을 조각하여 궁궐의 나쁜 기운을 쫓도록 하였다.

이 문앞에서 영조대왕은 1750년에 균역법시행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정조대왕은 1796년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백미를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병자호란때에 볼모로 청나라에 9년간 가있었던 소현세자가 이 문으로 들어설때에 백성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옥천교를 지나면 명전전에 이른다. 명정전은 창경궁에서 즉위식, 과거시험장, 궁중연회장, 하례장, 경로잔치 등의 공식적 행사를 거행하였던 정전이다. 정조대왕때에는 이 곳 명정전행각에 1788년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의 친위부대를 두었다.

명정전을 지나면 경춘전과 환경전에 닿는다. 이곳은 내전으로서 침전이며 왕과 왕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환경전은 유일하게 중종대왕을 진료한 대장금의 드나들던 곳인데 조선시대에 의녀들 중에 왕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바로 대장금이다.

대장금은 1515년 장경왕후의 출산을 맡았고 1522년 자순대비의 병을 치료한 후 그 공으로 왕의 치료를 전담하게 된다.

대신들은 의원이 아닌 의녀를 주치의로 삼은데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왕은 끝까지 대장금에게 진료를 담당하게 하였다.

중종대왕은 중풍과 그 합병증으로 1544년(중종39년)에 환경전에서 승하하였다. 중종실록에 대장금의 진료실적기록이 나온다.

통명전과 양화당은 남향으로 위치한 곳에 있는 내전의 전각이다.

숙종대왕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다가 내전의 궁녀였던 장옥정을 가까이하여 장옥정은 1688년(숙종14년)에 왕자 균을 낳아서 희빈의 자리에 오른다. 장희빈은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하기 위하여 꼭두각시화상을 그려놓고 화살로 쏘는 무당행위와 동물의 시체를 통명전 주위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이 발각되어 왕비까지된 장희빈은 다시 강등되어 결국 사약을 받아 4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서5능에 묻혔다. 왕은 세자를 책봉하는 과정에서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킨 일련의 복잡한 사건이 발생되고 견련되어 고뇌에 빠졌다.

그 당시 조정의 정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볼 것 같으면 세자책봉에 있어서 그 때 집권세력인 서인 송시열 등은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니 후일을 기다리자고 반대 하였으나 왕은 1689년(숙종15년) 정월 왕자균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물론 남인세력의 힘을 입었다.

그 후 왕은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했다가 정읍으로 이배시켜 사사케 하고 서인을 모두 파직 유배시켰으며 반면에 남인 권대운 김덕원 등을 등용하였음으로 남인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를 기사사화라 한다. 그 해 5월에 인현왕후 민씨는 폐비되고 장희빈은 왕비가 된다.

이에 서인 박태모등 80여명이 반대상소를 하였으나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1694년(숙종20년)서인의 김춘택 한중혁 등이 폐비복위운동을 하다가 고발되였고 당시 남인 민암 등이 서인을 완전제거 하려고 옥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왕은 폐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옥사를 다스렸던 민암을 사사하고 권대운과 김덕원을 유배하고 소론의 남구만 박세채 윤지환 등을 등용하여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한다.

또한 송시열 등은 복작되고 남인세력은 물러나게 되였다.

창경궁 중앙지대에 춘당지가 있는데 지금은 2개의 연못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 쪽은 원래 논이였는데 왕이 몸소 농사의 시범을 보이던 곳이고 풍년을 기원하였던 행사지였다. 또한 양잠을 권장하고 소채를 재배한 내농포도 있었다. 뒤쪽은 습지로서 개울물이 흐르는 곳이다.

지금도 춘당지에는 원앙이 짝지어 놀고 있다.

일제가 1909년 창경궁을 훼손할 때에 이 자리에 깊이 2m이상의 연못을 깊게 파서 보트를 띄워 놀이터로 만들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창경궁의 관덕정으로 가본다. 관덕정은 1642년에 지은 정자인데 활을 쏘던 장소이다.

앞쪽의 넓은 터는 군사 훈련장과 무과시험장이다.

관덕정 북쪽에는 집춘문이 있다. 성균관 문묘에 역대 임금이 내왕할 때에 사용하던 문이다.

월근문은 집춘문 아래쪽에 있는데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사당에 참배하기 위하여 별도로 낸 문이다. 정조대왕의 효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헤아려본다.

창경궁 뒷편 언덕 관천대 서쪽 수강재 취운정은 왕자가 독서와 정무를 보던 곳이다. 관천대는 돌비석만 세워져있고 그 비석에 긴 장대를 세워서 3각기를 달아 풍향을 재는 표시에 불과하다.

관천대 동남쪽은 창경궁의 수레와 마구 축사 창고 등의 건물시설이 있던 곳인데 일제시대에 이곳에 동물원 축사를 지었던 곳을 1986년이후 복원사업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있다.

창경궁 궐내는 소나무 고목이 울창하고 단풍나무 은행나무 회나무 벗나무 관상수와 잡목이 서있는 수림 속이다. 특히 백송 3그루가 연당지 동쪽에 서서 청아하고 고고한 향취를 풍긴다.

이 백송은 북경을 내왕한 사신들이 솔방울을 가져와서 심은 것이 낙낙장송이 되었다. 백송은 처음에는 굴피가 녹색을 띄고 자라나는데 크면 클수록 흰색으로 변하여 솔잎은 청색 껍질은 흰색을 띄는 희귀 수종이다.

창경궁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명운을 같이 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쳐 일제식민지시대의 수난을 겪어 왔으나 이를 극복하였고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옛 왕조체제의 영화를 재조명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출중한 왕실의 규범을 느낄만한 발원지라고 확신한다.

〈끝〉